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동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전도
아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6-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계웅

금요찬양집회는 천국잔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눅 13:29)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예수님과 구약의 이야기

우리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모양의 이야기
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
구이신가를 배우고 깨닫고
또한 믿는다. 그러나 예수
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
약에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이 없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다. 구약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읽으셨던 말씀이며 또 그 안에는 예수께서 아시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눅 2:42~43, 46, 47). 예수께서 부르시던 찬미는 그 안에 있는 시와 찬양이다. 인생과 우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고 또 이해하기에 이르는 것을 형성해 주었던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깊이가 모두 구약의 말씀 속에 있다(눅 4:18~21). 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도 찾았었고 또한 자신의 사역의 목적도 찾았었다. 정말로 구약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접하게 해 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하여는 잘 모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자이크처럼 종합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이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잘 속는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구약성경과도 관계없는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의 모습에 우리는 현혹당하고 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열심 있는 신학교, 신학자들에 의하여 조성되고 강단을 통하여 퍼져나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예수님과 구약의 이야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마 1:18).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있기 전, 1~17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의 이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기에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다. 신약을 정경으로 편찬한 사람들이 이 기록을 신약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다.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동방박사들이 오기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긴 이야기들이 마침내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있음을 마태복음은 보여 준다. 구약이야말로 마태가 종합해서 기록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마 1:1).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구분하였다.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 11~17의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켜 주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긴 이야기를 포도원과 농부들의 짧은 비유로 설명하였다(마 21:33, 37~39). 마태가 복음서를 구약의 계보로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바로 깨닫기 위함이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으로써 하나님께의 구원의 큰 사역인 구약과 신약을 묶어주는 역사적인 중심부다. 구약이야말로 예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즉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역사에 빛을 비추고 계심을 보아야 한다(창 12:3; 시 132:11; 행 2:30~32). 아멘.

우리에게 금요일은 특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 시작되는 날로써 금요일을 특별히 여기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금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천국잔치 때문에 금요일을 특별히 여기며 기대합니다(행 2:47). 금요찬양집회는 한 마디로 천국잔치입니다.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어 드리는 찬양은 그야말로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미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70세 전후의 고령의 나이로 구성된 금요찬양집회 찬양대인 예루살렘찬양대의 찬미는 그 존재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곧 오케스트라까지 합류하게 되면 더욱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전령가는 아녜지라도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특별찬양,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성경암송시간은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요 5:39). 이어지는 선교파송 시간은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향연(제 8:4)입니다.

금요찬양집회의 정점은 위임목사님의 말씀시간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며 자칫 감정으로 쏠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공부하며 복음의 은총을 받았던 로마서를 마치고 지난 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었으니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 원합니다. 보혈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메시간 샘솟는 금요찬양집회 좌석이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조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 천국잔치에 늦지 마십시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눅 14:17).

*10월 1일부터 금요찬양집회 교구좌석 변경 시행 (교구좌석 변경표, 본지 7면)

THE TEMPTATION OF JESUS

⁽¹⁾Then Jesus was led up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²⁾And after He had fasted forty days and forty nights, He then became hungry. ... ⁽¹⁰⁾Then Jesus said to him, "Go,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 ⁽¹¹⁾Then the devil left Him; and behold, angels came and began to minister to Him.

(Matthew 4:1-11)

During Jesus' inauguration, God's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pleased" (Mt. 3:17). Jesus came to this earth to do God's will. God's will is for people t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so that they can be saved and become His children,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n. 1:12-14). Right after Jesus' inauguration, the Holy Spirit led Him outside to be tempted by the devil, "Then Jesus was led up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Mt. 4:1). The devil, Satan, has authority in this world. He wanted Christ to sin so as to destroy God's plan for our salvation. Just as the devil tempted Christ, he now enjoys tempting Christians. I've heard Christians claim that the devil can't tempt them, but this is so untrue. If the devil tempted Christ, he can easily tempt any human. He is going to tempt you and me because he wants to destroy our salvation! Let's look at his tricky techniques, so that we can be prepared to stand firm in our faith.

After Jesus fasted forty days and nights, He became very hungry. The devil came to him in his hunger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at these stones become bread" (Mt. 4:3). Our physical bodies always need something. Jesus went sometime without food, so His body craved food. His desire was to eat. Whatever your physical desires may be that is where the devil likes to hit you with temptation. The devil always tempts God's chosen people. Paul was concerned about the devil tempting the Thessalonians, "For this reason, when I could endure it no longer, I also sent to find out about your faith, for fear that the tempter might have tempted you, and our labor would be in vain" (1 Thes. 3:5). The devil emphasized physical bread, but Jesus told the devil,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God'" (Mt. 4:4). Before entering the Promised Land, Moses strongly told his people, "You shall remember all the way which the Lord your God has led you in the wilderness these forty years, that He might humble you, testing you,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you would keep His commandments or not. He humbled you and let you be hungry, and fed you with manna which you did not know, nor did your fathers know, that He might make you understand that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man lives by everything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the Lord" (Deut. 8:2-3). The Word of God is the key to standing firm in your faith. Jesus taught us to pray,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Mt. 6:11). The devil will tempt you in your desires, so don't fall prey to his trap. Instead, stand firm in the Word of God, which is Jesus Christ.

When the devil couldn't get Jesus to fail through the lust of the flesh, he went after the lust of the eyes. He took Jesus into Jerusalem and had Him stand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He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Mt. 4:6). If Jesus had thrown Himself off this pinnacle and landed unharmed, the people watching at the temple might have proclaimed Him as the Messiah. If you're a Christian in an honorable place, like a pastor on a pulpit, and others want you to show them how great you are, don't fall prey to Satan's trap. The devil tries to use your desire for others to see you as powerful. Be humble, put yourself down and put Jesus up. Today, there are a lot of church leaders causing trouble this way. The devil quoted Scripture (Ps. 91:11-12), omitting a phrase that was not suited for his purpose ("in all your ways"), to try and get his way. Don't use the Word of God for your own glory. Jesus responded to the devil by quoting Scripture (Deut. 6:16), but He did so for God's glory. Don't let your eyes wander from Jesus. Keep them focused heavenward, and the devil will not prevail.

When the devil couldn't get Jesus to stumble, he pulled out his number one weapon, which is the pride of life. He took Jesus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and he said to Him, "All these things I will give You, if You fall down and worship me" (Mt. 4:9). Satan had the authority as the ruler of this world to make Jesus this offer. It was certainly much easier to bow than to take the cross! The devil loves to tempt you with the easiest way. Jesus told the devil, "Go,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Mt. 4:10). The Lord quoted from Deuteronomy 6:13. Is the prince of this world controlling you now, or have you kicked him out? When Peter was out of line, Jesus told him,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God's interests, but man's" (Mt. 16:23).

My dear friends, you will have victory over any temptation the devil brings your way by keeping your faith in Christ. Jesus won the victory! James 1:2 says, "Consider it all joy, my brethren,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If you concentrate on Jesus Christ in your life you will win.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Ps. 23:4). In today's terms, the devil started out attacking Jesus with one million dollars, then two trillion dollars, and finally offered Him all the money in the world. His attacks take on deeper issues as we grow older. Please confess that Jesus alone is your Lord; the source of your life and power. There is no way that you can escape the devil's temptations. You have to face them. If you concentrate on Jesus Christ and deny yourself, you will have victory.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1 Jn. 2:15-17). Amen. 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마 4:1)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 4:10)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1~11)



김성만 목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2-14). 예수님은
 세례 받은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
 4:1). 마귀, 사탄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하여
 금 죄를 짓게 만듦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
 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자신들을 시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않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유
 혹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입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
 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매우 굶주렸습니다. 마귀는 주
 님께서 주리셨을 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먹을 것을 필
 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몸
 은 음식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몹시 배고팠습니다. 여러분의 육
 신적인 소원은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좋은 부분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백향 받은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바울은 마귀가 대살로니가 성도
 들을 시험할까봐 염려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들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
 도게 할까 함이니”(살전 3:5). 마귀는 눈에 보이는 음식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대답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
 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고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사 배로 더도록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
 이니라”(신 8:2~3).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
 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을 주시옵고”(마 6:11). 마귀는 여러분의 욕망을 이용해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
 로 그의 뜻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십시오.

뛰어내리라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자 ‘안목의 정욕’을 이용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
 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
 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느니라”(마 4:6).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렸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야로 인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상 앞에 선 설교자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장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회중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보기 원할 때, 사탄의
 뜻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마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여러분의 욕망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
 다. 마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성경(시 91:11~12)을 인용하면서 자신
 의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네 모든 걸세”)은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신명기 6:16을 인용
 해 마귀에게 대응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계속 천국을 향하도록 여
 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승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게 되자 마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성의
 자랑’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
 과 그 영광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다”(마 4:9).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그에게 절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하며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주님은 신명기
 6:13을 인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의 왕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라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 16:2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마귀가 여
 러분의 길에 놓은 어떤 유혹의 덫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
 셧습니다! 야고보서 1:2는 말씀합니다. “네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100만 달러로 공격하기 시작했다가 다음엔 2조 달러로 유혹하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귀는 더
 심각한 문제로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여러분의 삶
 과 능력의 원천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
 다. 여러분은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부
 인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
 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아멘. ■

메시아의 죽음 14

특별히 기록되어진 제자들

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그들이다(막 14:33). 복음서를 보면 이 세 명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람산 갯새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왜 또 다시 세 명을 따로 부르셨는가? 우선 이전에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예수님은 변화산(헤르몬산)에 오를 때 세 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셨다. 이곳에서 이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옛날 후에 예루살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막 9:2).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어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모습을 세 제자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윽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막 9:7). 단순히 놀라운 기적과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생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 제자는 확실히 들었다. 세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확실히 보고 들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가실 때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그들이다(막 14:33). 복음서를 보면 이 세 명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외에도 세 제자는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특별하게 목격했다(막 5:37, 41~42). 그러나 세 제자는 정반대의 모습을 갯새마네에서 보고 듣는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막 14:33)의 모습은 이전에 변화산에서 보았던 모습이 아니었다. 종교지도자들을 꾸짖듯이 병자를 고쳐주시던 능력있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갯새마네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셨다. 변화산에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다(막 14:36, 40).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었다. 사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멸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세 제자는 기억하지 못했다. 오히려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막으려는 인간적인 결심뿐이었다(막 14:29).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픈 자신들의 욕망들뿐이었다(막 10:35, 38). 성경에 특별히 기록된 세 제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음에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인간적인 욕망과 결심으로 가득찬 모습, 세상에서의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는 세 제자, 그러면서도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때 잠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빌 3:19).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막 14:37)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우리는 주님의 생명책에 특별히 기록된 자녀들이다. “나는 예수 따라 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은혜로 싸우리.”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특음

성도의 기업
(골로새서 1:12)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바를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골 1:12).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기를 원한다.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기업인가! 그래서 바울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골 1:3, 12). 성도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빌 1:7).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성도의 기업을 받는다(벧전 4:13).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기업에 관심이 없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따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기업 즉, 세상이 주는 기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세상의 기업에 끌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도의 기업을 바라보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벧후 1:4).

● 의의 상속자

성도의 기업을 얻은 자는 의의 상속자다. 의의 상속자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만 절대로 될 수 없다. 오직 보혈의 은혜와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한 은총의 역사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히 11:7). 하나님의 말씀

에 따라 산에 방주를 만들던 100여 년의 세월 동안 노아는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오레 참고 기다렸다(벧전 3:20). 결국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만든다. “곧 에베소서 1:12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롬 4:3).

●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성도의 기업을 얻은 자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나”(약 2:5). 아무 소망이 없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며 은총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원한 세계보다 유한한 세계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넓은 길로 간다. 성경을 곡해하여 우상과 율법을 만드는 데 분주하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롬 4:13).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 것은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롬 4:16).

●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에 참여한다

성도의 기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가 우리를 후임의 관세에서 친제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3-14). 이 모든 역사를 가능하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상이 은총이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자격을 부여하신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조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이며, 우리에게만 믿음만이 요구된다. 나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진 길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믿음으로 나아가갈 때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팔팔까지

십자가 은총 그리고 능력

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왔다.

우리와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다 우크라이나로 파송된 송요한 선교사가 온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출신 한인으로 대학생 시절 한국에 왔다가 중언교회를 알게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고, 고국의 동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렬한 가족만을 데리고 2004년 10월에 우크라이나로 갔다.



거의 7년 만에 한국에 오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적 재충전을 위한 잠깐의 쉼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중언교회에서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 변할 게 하나도 없더군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보혈로 충만한 예배가 저에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찬송이 은혜롭고, 특히 위임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통해서 다시 한 번 눈물의 회개를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교회 사역입니다. 대략 200여명의 성인과 5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배우며 나아가고 있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현지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기독교지도자를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개척 사역입니다. 현재 총 5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습니다.

사역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동방정교회와 주류인 우크라이나 사역에 큰 핏배가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최근에 정권이 바뀌어서 약간의 압박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껏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 볼 때

성도들의 기도 후원을 받으며 앞서 인도하시는 성령님 따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세우심에 감사하며 선교지로 향하였다. 주님께서는 예비된 영혼들을 순직히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기쁨도 갖게 하였고, 때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영적인 도전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보다 앞서려 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94%가 불교인 이 곳의 시골 목장과 탄광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본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음을 보고 주께서 이 곳의 영혼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느 목장에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방 안에 담배와 마약 피우며 4~5명이 모여 있는 모습에 우리는 당황하며 들어가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은 처음에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의 모습이 숙연해짐을 느꼈고, 다시 한 번 전도지를 내밀어 읽게 하였을 때 그들은 순종하였고 영접기도를 따라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방학 중이어서 집과 교회를 다니는 어린 학생들을 많이 만났으며,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데 자기자녀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 곳 초혼은 매우 아름다웠다. 양들이 한기호미 풀을 뜯는 모습과 하얀 게르가 있는 모습은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모습도 십자가를 통해 볼 때 어둠이었다.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영적인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였다.

김종희(권사, 20교구)

매 순간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처음 우크라이나로 갈 때 정말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행 3:6)뿐이었요. 그것만을 전하다보니 주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했고, 이것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대로 드러났습니다. 정교회의 영향으로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은혜와 능력을 모르는 현지인들에게 십자가를 전할 때 그들이 변했습니다. 마약과 알콜 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당부의 말과 기도제목은?

우리 교회(생명의 길 교회)는 매주 중언교회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보내 주시는 설교메일과 매월 보내 주시는 <주간찬양>, <중언의 만나>가 우리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뵈니 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절대대로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존엄함이 환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송요한 선교사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맺어질 복음의 열매였다. 보혈로 충만했던 한국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보였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성령의 단비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번 선교도 그러했다. 처음 3일 동안 우리 팀에 맡겨진 주된 미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역을 돕는 일이었다. 교회 사역을 돕는 데 우리의 준비는 거의 없었다. 알 수 없는 상황을 놓고 간구할 뿐이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일하셨다. 믿는 가장 심방 중 가장 내에 믿지 않았던 딸이 회심하게 하시고,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은 힘들지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신 일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을거!

우리 팀 각자는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있었다. 주님은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셨다. 나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고, 주님이 택하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 주님은 주님이 택하신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셨다. 순수한 영혼들은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곳. 아름다운 자연까지 더불어 천국이 이런 곳이라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냐 궁궐이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넓은 땅이나 인구 수에 비해 교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했다. 머물 곳 탓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그 영혼들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매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을 주옵소서.”

김승희(청년1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9월 1일(수) - 9월 9일(목)	4교구 3팀	임태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간	팀	팀장
9월 7일(화) - 9월 15일(수)	3교구 1팀	박창서
9월 7일(화) - 9월 15일(수)	11교구 4팀	김복수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5개 팀)

기간	팀	팀장
9월 17일(금) - 9월 23일(목)	청년1부 5팀	이신동
9월 17일(금) - 9월 24일(금)	충현북지전 1팀	윤순희
9월 18일(토) - 9월 25일(토)	에비다부 2팀	원창태
9월 18일(토) - 9월 25일(토)	청년2부 1팀	최창하
9월 18일(토) - 9월 25일(토)	17교구 4팀	김영목

간동과 나눔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이다(고전 3:16).

교회 속의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충현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주일 오후 2시, 교구모임 중인 성도들에게 질문했다.

충현교회는 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촌동 집사, 7교구, 제2교육관 4층
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교
회, 그래서 늘 감사로 섬기게 되는 교회

이진수 집사, 13교구, 제2교육관 3층
모든 생활의 근간이 되는 교회

김영환 집사, 22교구, 제2교육관 203호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교회

심모산 성도, 20교구, 제2교육관 202호
예수님의 품과 같은 교회

홍순애 집사, 5교구, 제2교육관 1층 포이노니아를
십자가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해 준 교회



장진영 집사, 17교구, 복지관 지하 1층
내 생애 첫 교회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된 교회

김금순 권사, 21교구, 복지관 지하 2층
매일 매일 나에게 새로운 도
전과 삶의 활력을 주는 교회



이영애 집사, 8교구, 본당 1층 112호
나에게 찬양사역의 뜻을 밝혀주시는 교회

권성희 집사, 10교구, 본당 1층 베다니를
오로지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
만을 깨닫게 해 준 고마운 교회

최영숙 집사, 12교구, 본당 지하1층 아멘을
이제 다른 어떤 교회로도 올
길 수 없는 사랑하는 교회

박원화 집사, 15교구, 본당 지하1층 오산나를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
음을 깨닫게 해 준 교회

정영매 집사, 25교구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반석과 같은 교회

전희희 집사, 21교구, 선교관 지하2층 매추마기를
나의 믿음의 주춧돌이자 평생 사
랑할 반려자와 같은 교회

정경진 집사, 3교구, 제1교육관 601호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수치를 올려나
와 늘 새롭게 됨을 체험하는 교회

이영애 집사, 4교구, 제1교육관 501호
자기부인과 회개를 통해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

김단용 장로, 15교구, 제1교육관 501호
말씀이 풍성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오은문 권사, 9교구, 제1교육관 401호
주님의 놀라운 지우와 회복이 있는 교회

정문호 집사, 10교구, 제1교육관 307호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고, 생명
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교회

이수진 집사, 1교구, 제1교육관 301호
오직 십자가 주님만 바라
보는 은혜의 교회

윤영아 집사, 23교구, 제1교육관 201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포도나무 같은 교회

백연숙 집사, 2교구, 제1교육관 207호
주님의 은혜 충전소

안환주 성도, 11교구, 제1교육관 1층 영아부실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말씀의 편지

사모님, 안녕하세요? 장마 후 불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그래도 교회의 많은 일과 찬양에 심취하시는 목사님 내외분으로부터 저희들이 활력을 얻습니다. 저는 회직 후 재직하던 학교와 강남구청의 한 문화센터에서 사회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제작 등으로 다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금요찬양집회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대학교수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영문학 교수인데 연세부럽던가 예수님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딸도 마찬가지로 현재 아바드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서울에서 공부할 때 잠시 저희 집에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곤 합니다. 2년 전,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직장을 초기 퇴직한 뒤 저술의 한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제게 연락을 했기에 출업을 한다고 연락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현재 휴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좀더 확신이 만나고 싶어 신학대학원에 간 것인데, 대학원 첫 수업부터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성경도 인간이 쓴 것이다"라며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가르치니 너무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교수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이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거나 토론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차라리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휴학을 했다고 하였답니다.

이와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우리 교회로 나와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저에게 전화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가 있었는데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답답하게 여기던 문제들의 해답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가 건내 준 <주간찬양도 말씀이 다 읽었다> 했습니다. 앞으로 <주간찬양>을 계속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온 교인이 드리는 화답된 찬양, 앞에 서서 영과 혼을 다하여 진두지휘하시는 위임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도 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교파도 아주 강령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분과의 대화를 통하여 저는 위임목사님께서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물라요"라고 하시던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가르치심과 리더십이 저희 양육자들에게 어떻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셨는가를 더욱 확신이 깨달았습니다.

사모님, 그저 사소한 이야기지만 웬지 사모님께 차우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드렸습니다. 바쁘신 시간 배웠었으면 용서해주세요.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언행이 계세요.

2010.8.20. 이윤의 드림

금요찬양집회 교구좌석 변경

*10월 1일(금요일)부터 시행

본당 1층 좌석 배치

강 단					
2 교구	24 교구	1 교구	선교팀 장학생 대학부 청년부	22 교구	17 교구
4 교구	11 교구	6 교구	14 교구	16 교구	12 교구
방문 자석	에바 다부			13 교구	13 교구

본당 2·3층 좌석 배치

18 교구	10 교구	23 교구	9 교구	8 교구	21 교구
15 교구	5 교구	3 교구	20 교구	7 교구	19 교구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천교회의
안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031	명재영	중등부	14	최노경	1041	솔버넌트	외선부	25	장영자
1032	박혜자	통신반	4	김미자	1042	구광서라미	외선부	25	이복채
1033	김윤지	양육반	11	최정희	1043	서리야	외선부	25	이복채
1034	박성민	양육반	24	장은숙	1044	장봉성	통신반	20	장은숙
1035	표경림	양육반	15	채홍표	1045	안지영	양육반	2	
1036	심영은	적용반	10	전성경	1046	오인애	적용반	1	
1037	이정은	양육반	22	박은복	1047	나린다	외선부	25	
1038	염숙경		17	이옥기	1048	이현숙	청년1부	21	함진옥
1039	말라	외선부	25	장영자	1049	심빛	외선부	25	이미경
1040	하리	외선부	25	장영자	1050	염서진	양육반	20	이재우

